

韓·日 實記文學에 나타난 임진왜란 체험의 형상화 전략*

이 채 연**

차 례

I. 머리말	1. 구도자의 시각과 내면 지향적 성찰의지
II. 한·일 실기문학의 서지적 개황	2. 포로인의 시각과 보고 지향적 목적의지
1. 실기문학의 성격	3. 인본주의적 시각과 전쟁 고발의지
2. 연구대상 범위	IV. 마무리
III. 한·일 실기문학에 나타난 서술 시각 의 층위와 형상화 전략	

I. 머리말

壬辰倭亂¹⁾은 한·일 양국이 민족 단위의 대규모 전쟁을 벌인 최초의 사건이었다. 7년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듯 상당히 장기화된 전쟁이었고 사상자의 숫자나 잔혹성 면에서도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임진왜란은 두 민족 상호간에 好不好的의 차원을 떠나 원수국의 입장에서 서로밖에 이해될 수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壬辰倭亂을 일본에서는 그들의 연호를 사용하여 文祿慶長役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함을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없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전쟁 발발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일 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상호인식의 틀 속에서 서로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개심, 멸시감, 상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것은 존화주의와 민족 자긍심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대사건이었다. 조선은 일본을 倭國 정도로 인식하고 문화 시혜자의 입장에서 交隣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²⁾ 이러한 일본으로부터 산천과 골육이 유린당하는 참화를 겪었다는 것은 당대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전승될 민족적 적개심 그 자체였다.

반면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에 대한 文化追隨主義와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중세 봉건질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명치유신 이후 본격화 된 일본의 征韓論과 대동아공영 정책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팽창주의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진왜란은 일본의 지역 패권주의 야망이 실현된 최초의 사건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민족간의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결정되어 버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진왜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는 주로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연구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우리 역사학계도 임란 400주년을 맞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일본 학계에 맞설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척될수록 양국은 임란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되었고, 결국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말았다. 민족 감정이 역사적 진실에 선행되면서 양국의 감정의 골은 학문의 힘을 빌어 더욱 견고해져버린 감이 있다.

이에 비해 문학연구는 이제 막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의 임란 배경 문학연구는 몇 편의 소설과 시조, 가사, 한시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고, 1992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광범위한 연구가 시작될

2)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事大以誠 交隣以信이라는 事大交隣策을 국시로 삼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문중, 「조선전기 李藝의 대일교섭 활동에 대하여」, 『전북사학』 11-12합집, 1989 참조.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까지 사료로 취급되어 문학연구의 장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記錄文學(Non-Fiction Literature)에 대한 관심이다. 그동안 서지적인 부분만 일부 알려졌으나 일련의 연구자들에 의해 實記文學이라고 명명되면서 작품의 구조, 문학적 특징, 작품의 가치 등이 규명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측은 상상적 문학(Fiction Literature)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나, 우리의 실기문학에 해당하는 임란배경의 기록들은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朝鮮日日記』와 같은 작품조차도 사료로서의 가치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³⁾

문학연구는 역사연구와 같이 객관적 사건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이를 구현하는 문장 구성방식의 규명을 통해 문학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기에 상호 비교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작품의 소재가 일치되어야 하고 작품의 구성방식(장르)과 작품 생성 연대도 동시대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상호 다른 표기와 문자체제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⁴⁾ 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국의 문자가 古語로 된 경우에는 해석도 쉽지 않은데다가 문학적 뉘앙스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투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특히 임진왜란과 관계된 일본 자료의 경우, 초서체(가나 변체 초서)로 된 것이 많아 일본 문학 연구자조차도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해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임진왜란 관련 작품(기록)을 이해하는 한·일 간의 시각이 일치하고

3) 『朝鮮日日記』는 작가의 내적고백을 담고 있는 일기임에도 일본에서는 일기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역사기록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역사연구로 內藤尚輔, 「僧慶念の朝鮮日日記について」, 『朝鮮學報』35집, 1965., 北島万次(朝鮮日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株式會社そしえて, 1982)와 是永幹夫(慶念「朝鮮日日記」の研究), 『青丘學術論文集』3집, 1993) 등을 들 수 있다.

4) 필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필자에게 번역 및 자문을 해 주신 권기수교수, 이정희교수, 김말식선생, 강용자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있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일본의 자료라 할지라도 당연히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는 문학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태도가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범세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일본 작품을 평가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필자는 상호 비교에 이의가 발생하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로 한다.⁵⁾

본고는 문학작품을 통해 임진왜란의 또 다른 모습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은 역사연구를 통해서만 조망할 수가 없다. 문학작품은 한 개인 혹은 그 집단의 내면세계를 드러다 볼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임진왜란 배경의 한·일 실기문학을 통해 넓게는 전쟁의 제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문학작품에 투영되어 있으며, 좁게는 한계상황 속에서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일 실기문학의 서지적 개황

1. 실기문학의 성격

한·일 실기문학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실기문학에 대한 성격과 개념부터 규정지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연구 대상 작품을 선정할 수 있고, 그 틀 속에서 비교연구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부터 살펴본다. 실기문학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을 계기로 하여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재조명 작업이 한창일 때, 문학분야에서도 임란 배

5) 이 경우 한·일 간 임진왜란의 문학적 대응양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기는 하지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경의 문학작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전란 체험 기록'들에 대한 가치 및 문학적 부여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전란 체험 기록'들은 實記 혹은 實記文學이라 명명하고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것들의 사료적 가치 및 문예미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학계의 연구 풍토가 지나치게 상상적 문예물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기와 같은 비실용 문예물도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실기문학이야 말로 역사와 문학, 문학과 역사의 상호 관련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시대사적인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 실기를 통해서 인간의 체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실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편의상 분류하면 용어⁶⁾, 문화사적 측면⁷⁾, 서지적인 측면⁸⁾, 작품론⁹⁾, 서술구조¹⁰⁾, 개념¹¹⁾ 및 작품 범위¹²⁾ 등에 걸쳐 다양

-
- 6) 김용숙(『왕조사회와 실기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조동일(『한국문학통사』 권3, 지식산업사, 1984, 7-40쪽).
 - 7) 김태준(『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 한국연구원, 1977), 소재영(『임진왜란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동태』, 『아시아문화』 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김태준(『임진왜란과 한일간의 문화적 대응』, 『아시아문화』 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 8) 邦波利貞(『月峯海上錄攷釋』, 『朝鮮學報』, 21-2합집, 1961.10), 『慶長丁酉役の水軍俘虜鄭希得の『月峯海上錄』』, 『韓日文化の後榮』上, 1962), 石源道博(『月峯海上錄について』, 『朝鮮學報』 23집), 中村榮孝(『朝鮮役の俘虜鄭希得の『月峯海上錄』』, 『日韓關係史研究』中, 1969), 中村榮孝(『月峯海上錄について』, 『朝鮮學報』 25집, 1962. 10), 梁在淵(『月峯海上錄』解題, 『國會圖書館報』 3권1호, 1966년 1-2합명호), 任昌淳(『錦溪日記』解題, 『國會圖書館報』 78호, 1971. 12), 尹炳奭(『海上錄』解題, 『海行總載』 卷8, 民族文化推進黨, 1967), 鄭然倬(『錦溪日記』解題, 『海行總載』 卷9, 民族文化推進黨, 1967), 辛鎬烈(『看羊錄』解題, 『海行總載』 卷2, 民族文化推進黨, 1967), 李乙浩(『丁酉遊亂記』解題, 『湖南文化研究』 5집, 湖南文化研究所, 全南大, 1973), 洪在然(『임진록 해제』, 『국문학연구』 7집, 효성여대 국문과, 1983), 황패강(『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 9) 소재영(『임란과 피로일기』, 『임진왜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이채연(『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집, 1992), 장경남(『임란 실기문학 임진록 연구』, 『승실어문』 10집, 승실어문연구회, 1993).
 - 10) 이채연(『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집, 1992), 『임란 실기의 창작동인과 성격』, 『수련어문논집』 20집, 부산여대 국어교육과, 1993), 장경남(『임란 실기문학의 서술특징 연구』, 『승실어문』 13집, 승실어문학회, 1997).

하게 논의 되었다. 필자의 견해¹³⁾를 중심으로 실기문학의 정의, 성격, 작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실기문학은 실존 인물이 戰爭이나 亂,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記, 錄과 같은 문체로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生體驗 중심의 문학이다.

이러한 실기문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기문학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작가가 경험한 생생한 현장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현장에서 느낀 개인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실기문학은 역사현장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그것을 통한 효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사에 경사되어 있으나, 작가의 개인적인 정서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학작품이다. 즉, 실기문학은 역사가 표방하는 실증주의적 과학성과 상상적 문학이 표방하는 작의성 사이에 위치하는 문학양식이다.

셋째, 실기문학은 散文과 詩가 混淆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산문의 서술은 보고적 서술과 장면적 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자의 표현법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쪽으로 경사된 경우도 있다. 주로 보고적 서술만에 의존한 것은 歷史實記¹⁴⁾이고 양자를 조화시킨 것은 文學實記(실기문학)

- 11) 황패강(『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정은임(『궁중실기문학연구』, 솔터, 1993), 이채연(『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장경남(『입란 실기의 장르적 특성연구』, 『국어국문학』116호, 1996), 이동근(『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논집』 20집, 서울대 국문과, 1995).
- 12) 이채연(『실기문학과 서사문학』,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I』, 중앙문화사, 1995), 장경남(『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7).
- 13)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 14) 역사실기는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증서적을 나열하거나 발췌하여 역사서처럼 사건의 경위 설명에 주목적을 두고 쓰여졌다. 그러면서도 찬술자가 그날 그날의 일을 적으면서 개인의 정감에 찬 심회를 보여 주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야사로 단정지을 수만은 없고, 일종에 문학과 역사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실기는 실기이되 歷史實記라 부르기로 한다. 이런 류의 글로는 조경남의 『난중잡록』, 申昶의 『再造藩邦誌』,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 등이 있는데 일종의 私撰史書의 성격을 띤다.

이다. 문학실기는 시와 산문이 혼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문의 경우도 장면적 묘사와 보고적 서술이 적절히 혼합·표현되어 작자의 자기고백적 감상이 담겨 있어 역사기록이 주지 못하는 정감적인 호소, 인간성의 발견, 감동적인 정황서술, 진실 추구 등 비록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인간성의 존귀함을 일깨워 준다.

넷째, 실기문학의 서술자는 1인칭의 체험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여라도 실제 작가와 동일한 인물이어야 한다. 즉, 경험주체와 서술주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¹⁵⁾ 따라서 작가인 서술자의 태도, 감정, 가치판단, 인생관 등이 진솔하면 할수록 다른 실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섯째, 실기문학은 작자의 역사의식과 기록의식의 부산물로 자신의 체험을 잊지 않고 보존하였다가 후세에 대한 鑑戒와 警戒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기문학을 분류하면 크게 捕虜實記, 從軍實記, 避亂實記로 나누어진다.¹⁶⁾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포로실기에는 姜沆의 『看羊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慶得의 『萬死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魯認의 『錦溪日記』가 있고 종군실기에는 柳成龍의 『懲愆錄』, 李魯의 『龍蛇日記』, 李舜臣의 『亂中日記』, 李廷範의 『西征日錄』, 李擢英의 『征蠻錄』, 尹國馨의 『聞韶漫錄』, 趙靖의 『壬亂日記』, 鄭慶雲의 『孤臺日錄』 등이 있다. 피란실기에는

15) 실기문학에서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일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망우당선생집』, 『김충장공유사』, 『식성군실기』, 『매헌실기』, 『후지당실기』 등은 後代人들에 의해서 전란(혹은 난)이 발생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뒤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실기이다. 따라서 경험주체와 서술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실기의 被傳者는 대개 전란에서 무공을 세웠든가 후대인들에게 可範할 인물들이지만 그 저술이 없거나 산일되어 후대인들이 그의 행적을 追述하는 경우이어서 사적이 더러 과장되거나 허구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기는 대체로 18-19세기에 문중이나 향촌조직을 중심으로 간행되거나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실기'라는 表題를 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류의 글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채연의 앞의 책, 117-120쪽 참조)

16) 이채연, 앞의 책, 49-93쪽 참조. 한편, 장경남(『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7)은 실기의 분류를 포로실기, 종군실기, 피란실기, 호종실기로 나누고 있는데, 필자는 피란실기와 호종실기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吳希文의 『瑣尾錄』, 柳珍의 『壬辰錄』, 金涌의 『雲川扈從日記』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실기문학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지 않고 軍記 속에 임란 관련 기록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軍記는 軍記物語, 軍記物, 戰記物語, 戰記文學 등으로 불리며 서사문학적 작품제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主材는 전쟁을 내재적인 여건으로 하는 사회적 사건과, 사건을 담당하는 인물 및 집단에 관한 것이고 둘째, 전승에 매개되어 구상화되는 일이 많고 표현도 일반적으로 개성적이기보다는 집단의 상상력에 지탱되어 실현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작품이 다양한 異本群을 가지고 異本은 각각 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작품은 원칙으로 연대기적 양식에 의해서 정서되고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 전개된다. 넷째, 설화적 구상력과 함께, 또 전통적인 物語的 구상에 기인한 경향이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口誦적 성격이 있고, 말하기, 읽기에 매개되어 형성·유포된다. 여섯째, 구상은 외래사상에 지탱되어지는 일이 많고 문체적으로도 외래의 漢文脈과 전통적인 日本文脈과의 통일로서의 日漢混交文이 우월하다. 일곱째, 영웅적 인물(반역적 성격을 띄는 인물이 현저)이 집단의 행동양식에 맞는 민족적인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¹⁷⁾

軍記는 일본의 古代末期부터 中世全期에 많이 지어졌지만, 近世 이후에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소위 朝鮮物語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慶念의 『朝鮮日日記』¹⁸⁾, 田尻鑑種의 『高麗日記』¹⁹⁾, 天荊의 『西征日記』²⁰⁾, 大河內秀元の 『朝鮮日記』²¹⁾, 大田信一の 『高麗陣日記』²²⁾ 堀杏庵의 『朝鮮征伐

17) 『日本古典文學大辭典』 第二卷 岩波書店 317쪽.

18) 慶念, 『朝鮮日日記』, 安養寺本(『朝鮮學報』 35집, 1965).

19) 田尻鑑種, 『高麗日記』, 佐賀縣立圖書館本(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 株式會社そしえて, 1982).

20) 天荊, 『西征日記』, 前田尊經閣文庫本(『續群書類從』三, 平凡社, 昭和 四十五年).

21) 大河內秀元, 『朝鮮日記』, 田安家舊藏 5冊. 別稱으로 「朝鮮記」「大河內朝鮮記」「大河內物語」「大河內秀元陳中日記」「大河內秀元朝鮮日記」「朝鮮征伐記」등으로 불려 지기도 하며 책 권수에 차이가 있다. 1662년에 自跋과, 아들인 秀連이 京都의 正福寺에 本書를 바친 사정을 적은 奥書가 붙어 있다.

22) 大田信一 『高麗陣日記』, 內閣文庫 四冊.

記』²³⁾, 山崎尙長の『兩國王亂實記』²⁴⁾ 그리고 『朝鮮征伐從軍日記』²⁵⁾, 『朝鮮陣記』²⁶⁾ 등과 大關定祐 編의 『增補朝鮮征伐記』²⁷⁾, 馬場信意 編의 『朝鮮太平記』(31책, 1705 刊), 『朝鮮軍記大全』(38권 付2권, 1705년 刊) 등이 있다.

朝鮮物語는 비록 物語라는 장르에 귀속되어 있지만, 한국의 소설과 같이 모두가 픽션물은 아니다. 이들 작품의 성격은 실록체의 일지에 가까운 것, 야사적 성격을 띤 것, 한국의 실기문학의 성격을 띤 것, 『임진록』과 같이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소설 등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장르 구분방법과 문학의 개념 및 용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기문학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軍記 중에서 우리 문학의 잣대를 적용시켜도 별 무리가 없는 작품은 일단 실기문학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2. 연구 대상 범위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체험의 상대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험 장소가 상대국에 국한되어 있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한국의 임란 실기문학 중에서는 작자의 체험지가 일본인 경우로 제한하며, 일본은 한국에서 체험한 내용을 적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실기 중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姜沆의 『看羊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慶得의 『萬死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魯認의 『錦溪日記』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의 작자들은 임란 당시 포로로 끌려가 오랜 기간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에서 느낀 임진왜란에 대한 시각을 이들 작품 속에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이 중에서 강항의 『간양록』을 비교 대상의 작품으로 선정한다.

23) 堀杏庵, 『朝鮮征伐記』(『通俗日本全史』 제29권, 早稻田大學校 出版部, 大正 二年).

24) 山崎尙長, 『兩國王亂實記』, 內閣文庫本.

25) 『朝鮮征伐從軍日記』, 對馬島醒泉院本.

26) 黒田家譜, 『朝鮮陣記』, 東洋學報 35권 2호.

27) 別名은 「朝鮮軍談實錄」으로 42권 42책이다.

강항의 『간양록』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간양록』이 포로실기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²⁸⁾ 둘째, 정회득의 『월봉해상록』, 정경득의 『만사록』, 정호인의 『정유피란기』는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轉寫 과정에서 『간양록』을 참조한 흔적이 많아 대표 작품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며²⁹⁾ 셋째, 노인의 『금계일기』는 앞 뒤 부분이 낙질³⁰⁾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체험세계가 빠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의 실기 중 문학실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慶念의 『朝鮮日記』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 중군 기록물 가운데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작가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문장구성 원리 등이 한국의 실기문학과 일치된다. 나머지 작품 중 田尻鑑種의 『高麗日記』, 天荊의 『西征日記』와 같이 실기문학의 성격을 띤 것 중에서도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역사적 사실 기록에만 치중하고 있어 개인의 정서적 감응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시킨다. 또한 題名에 일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나 개인의 정서적 감상을 적은 문학적 일기가 아니라 진중의 사건을 기술한 日誌에 가까운 것도 제외한다. 그밖에 픽션문학에 해당하는 것도 비교연구의 특성상 제외시킨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일기』가 일본측의 임진왜란 실기 중에서 문학적 서술방식에 입각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문학계에서는 『조선일일기』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연구 가치를

-
- 28) 『간양록』에 대한 관심은 다른 포로실기보다 우선되었고 그 폭도 훨씬 넓은 편이었다. 이을호 교수는 62년(형설출판사), 73년(대양서적), 80년(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84년(양영각) 등 네 차례에 걸쳐 번역·소개한 바 있고, 84년에는 일본에서 박종명에 의해 『看羊錄-朝鮮儒子の日本抑留記』(동양문고)가 간행되기도 했다.
- 2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88-94쪽 참조.
- 30) 『금계일기』는 선조 32년(1599) 2월 21일의 앞부분이 끊어진 채 시작되고 있으며, 6월 27일 또한 뒷부분이 끊어진 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 일기에 수록된 날은 4개월 7일 간의 기록인 셈이다. 피난후 1년 6개월의 과정과 중국에서 조선으로의 귀환과정 1년 6개월은 알 수가 없다. 현전 『금계일기』는 노인의 후손인 魯錫鏗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이는 노인의 白筆 墨書로 앞뒤가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것은 67장이다. 떨어져 나간 앞 뒤 부분의 일부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이 1823년에 간행된 『錦溪集』에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부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역사 학계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³¹⁾ 일본의 일기문학 연표나 문학사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현재로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사료로서의 가치만 높히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다른 작품은 몰라도 『조선일일기』만은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작품의 가치도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몫은 일본 학계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한·일 실기문학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 비록 일본의 작품이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럼 여기서 두 작품의 서지적 특징과 저술동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姜沆의 『看羊錄』

『간양록』은 강항이 일본에 끌려가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글로 정확하게는 1597년 9월(선조 30년, 丁酉年)에서 1600년 5월(선조 33년, 庚子年)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³²⁾

이 책은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涉亂事迹」,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로 짜여져 있다. 「賊中封疏」는 강항이 일본의 여지, 관호, 군제, 형세 등을 기록하여 선조에게 올린 疏로서 임란 당시의 일본의 정세에 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賊中聞見錄」은 강항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인과의 친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본의 실정을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는 <왜국백관도>, <왜국팔도육십육주>, <임진·정유에 침략해 온 왜장의 수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왜국백관

31) 이 점은 우리 학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띄었다.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배경의 실기들은 역사 기록으로 분류되어 사료로서의 가치만 논의될 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몇몇 학자에 의해 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재는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연구되고 있다.

32) 현전하는 「간양록」의 판본은 필사본, 목판본이 있다. 필사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81장 1책으로 되어 있다. 목판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 간행된 것은 효종 7년(1656)에 간행된 『睡隱集』 6권 6책 중 5책의 『看羊錄』이 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효종 9년(1658)에 간행된 『睡隱集』 4권 4책 중 3책의 『睡隱看羊錄』이 있다. 현재 서울대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위 각 판본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필사본이 먼저 나오고 그 뒤 목판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와 <왜국팔도육십육주>는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임란 당시의 실정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시사성이 강하다. 특히 <해동제국기>가 천황중심의 계보에 초점 맞춘 것이라면, <왜국백관도>는 천황 이하 관료들의 직급 및 직책명을 밝히고 있어 당시의 일본 실정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임진·정유에 침략해 온 왜장의 수요>은 당시 출정 장수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가계, 관직, 식읍, 성격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涉亂事迹」은 자신의 포로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글인데, 군데군데 詩가 섞여 있어 강항의 정서적인 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강항은 『睡隱集』에 많은 시를 남기고 있지만 포로체험을 시화화하는 것은 「섭란사적」의 시 뿐이라는 점에서, 이들 시들이 갖는 소재적 특성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告俘人檄」은 조선으로의 귀환이 결정된 뒤 대마도에 도착하여 남아 있던 조선 포로들에게 보내는 격문이다. 이 글은 포로생활을 청산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관점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다. 또한 남아 있는 포로들에 대한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어 어조가 상당히 격양되어 있다. 당시에 많은 격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호소력 있는 글로 생각된다. 「詣承政院啓辭」은 고국에 도착하여 왕에게 적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간양록』은 원래 강항이 '죄인이 타는 수레'란 뜻을 사용하여 『巾車錄』이라 하였다. 그 뒤 후학인 尹舜舉가 책을 간행함에 있어 權譯이 강항의 상소가 적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적은 <姜太初疏自賊中來感而成詩>³³⁾에서 그의 충절을 예찬한 詩句(節爲看羊落)를 차용하여, 그의 절개를 칭송하는 뜻에서 『간양록』이라 한 것이다.³⁴⁾

姜沆(1567-1618)은 진주 사람으로 자는 太初요, 호는 睡隱으로 私淑齋 希孟의 5세손이다. 선조 21년(1588)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26년(1593)에 丙科에 선발된 후 교서관 박사 및 공·형·조·좌랑을 지냈다.³⁵⁾ 그는 牛溪 成渾을 찾아가 자

33) <姜太初疏自賊中來感而成詩>, 「附錄」, 『睡隱集』.

34) 尹純舉, 『看羊錄』跋文.

35) 『선조실록』, 선조 32년 9월 19일.

주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³⁶⁾ 그 뒤 고향에 내려와 있던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나자 李光庭의 종사관으로 부임하여 의병을 모으기 위해 격문을 들고 동분서주하던 중, 靈光이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이순신이 있는 통제영으로 향하다 왜군에게 납포 되었다. 이때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살아남은 가족 일부와 함께 일본 伊豫로 압송되었다가 大阪, 伏見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2년 8개월 간 일본에 억류되어 있다가 1600년 5월에 京都를 떠나 부산에 도착했다.³⁷⁾ 중국인 王建功편에 부친 강항의 봉소가 조정애 도착하자 선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칭찬하며 이를 비변사에 두게 했다. 또한 선조는 직접 강항을 초치해 술을 내리면서 일본의 실정을 묻고는, 말을 하사해 고향으로 향하게 했다 한다. 고향으로 내려온 후 몇 번의 하급직 벼슬이 주어졌으나 잠시 부임한 후에 향리에 우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냈다.³⁸⁾

강항의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江戸儒學이 창시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강항은 藤原惺窩(1561-1619)와 교류하면서 그가 강호유학을 창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³⁹⁾ 藤原惺窩는 禪僧이었으나 강항과 교류하면서 불교와 결별하고 유학자로 변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예법에 관해서도 많은 지식을 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藤原惺窩가 일본 최초의 주자의 주석본인 『四書五經倭訓』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됨으로써 그의 학식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2) 慶念의 『朝鮮日日記』

『조선일일기』는 정유재란 때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의 막하의 奉行으로 출전한 九州 臼杵의 성주 오오따 히센노카미(太田飛驒守一吉) 부대의 醫僧으로 참전한 케이넨(慶念)의 從軍歌日記이다. 이 일기의 원본은 케이넨이 주지로 있던 오이따현(大分縣) 우스끼시(臼杵市)에 있는 안양사의 보물로 보존되어 있

36) 尹舜舉, <承議朗守刑曹佐朗睡隱姜公行狀>, 『睡隱附錄』, 『睡隱集』.

37) 姜沆, 『看羊錄』.

38) 尹舜舉, <承議朗守刑曹佐朗睡隱姜公行狀>, 『睡隱附錄』, 『睡隱集』.

39) 阿部吉雄(『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出版會, 1971)과 內藤篤輔(『文綠·慶長役における被虜人遺聞』, 『朝鮮學報』49집, 1968.10)을 참조.

는데, 향토사학자 무라이(村井), 하시바(羽柴)가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조선일기』란 표제로 간행한 뒤 1994년 2월에 인쇄본으로 정식 간행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한 나이토 순보(內藤篤輔) 교수⁴⁰⁾에 따르면 케이넨의 일기는 草稿本과 淸書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초고본은 초서체의 분방유려한 가나(假名)에 의해 쓰여져 있으며 좀벌레에 의한 손상과 얼룩이 있고 다시 철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란 중에 케이넨이 직접 들고 다녔던 초고로 속표지와 마지막의 12장이 낙질되어 전한다. 청서본은 초고본의 가나를 한자로 고쳐 쓴 것이 많고 초고본의 내용을 잘못 옮겨 기록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慶念 사후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전사본이다. 나이토 교수는 초고본을 기초로 하여 초고본 중에서 망실된 부분은 청서본으로 보충하고 별도의 주석을 붙여 『조선학보』⁴¹⁾에 게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서본의 속표지에 『일일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명을 보관처인 안양사에서 오래 전부터 불러 왔던 『조선일일기』로 개명하였다. 본고는 이를 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하기로 한다.⁴²⁾

케이넨에 대해서는 安養寺에 전해지는 「安養寺莊殿錄」에 간략히 전한다. 이에 따르면 그는 遠州 掛川 성주 안도오모(安藤某)의 아들이고, 출가 후 상경해서 本願寺의 켄노쇼오닌(顯如上人)으로부터 蓮如上人の 眞筆인 六字名號 등을 얻고 西國으로 향하던 도중에 淀川の 배 안에서 우연히 봉고우스끼(豊後臼杵)의 손자 사에몽(左衛門)이라는 사람과 동승해서 설담을 나눈다. 인연이 두터워 師僧과 施主로서 약속을 맺고, 臼杵에 도착해서부터는 성주 太田飛驒守一吉를 귀의(歸依)시켜 安養寺를 건립하고 사찰의 영지 백석을 기부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후 慶長(정유재란) 때 종군했지만, 귀국 후 10년 정도 지난 1611년(慶長 16 辛亥年 9월 13일) 78세로 입적했다.

『조선일일기』는 케이넨이 성주 太田飛驒守一吉의 명령에 의해 종군승으로 조선에 파병이 결정된 이후인 1597년 6월 24일부터 종전 후 고향에 돌아온

40) 內藤篤輔, 「僧慶念の朝鮮日記について」, 『朝鮮學報』35집, 1965.

41) 慶念, 『朝鮮日記』, 『朝鮮學報』35집, 1965.

內藤篤輔, 「朝鮮日記追考并に正誤」, 『朝鮮學報』41집, 1966.

42) 『조선일일기』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필자는 일본문학을 연구한 몇 분에게 의뢰하여 번역한 것과 최근 신용태교수가 간행한 『임진왜란 종군기』의 번역본을 참조로 하여 이 연구를 수행한다.

1598년 2월 2일까지 약 9개월 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케이넨이 파병된 시기는 임란의 마지막 단계로 철군을 둘러싼 매우 격렬한 전투가 매일 매일 반복되던 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케이넨은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남기고 있다. 이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기록정신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작품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이 점은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일일기』의 서술은 산문과 시가 혼효되어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산문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의 설명, 혹은 정황을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는 정황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감회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여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문을 통해서 그날 그날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한다. 이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와까(和歌)를 통해 나타나 있다. 즉, 산문은 상황 진술을, 시는 정감을 표출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는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망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포로실기의 서술구조와 매우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⁴³⁾ 그러나 한국의 실기문학의 산문이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안배하여 기술한 것인데 비해 『조선일일기』의 산문은 주로 서술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일일기』에는 330여수의 와까(和歌)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수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많은 편수이다. 매일매일의 일기가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듯이, 和歌도 매일 한 편 이상은 수록되어 있다. 이들 和歌는 그날 그날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 심회를 매우 솔직하게 담고 있어 인간 케이넨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들 시는 크게 승려로서의 종교적 신앙심, 望郷之情의 애절한 심정, 전쟁과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혐오감, 終戰에 대한 기원과 인본주의적 자비심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 이채연, 앞의 책, 215쪽.

Ⅲ. 한·일 실기문학에 나타난 서술 시각의 층위와 형상화 전략

실기문학은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혹은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적진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화 각오가 없이는 성편되기 힘든 것이며, 이는 작가의 기록의식과 역사의식이 바탕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문학은 역사서술과는 다른 양태를 띄고 있다. 오히려 역사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전경적 상황 묘사, 인간 중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개인적 차원의 갈등 등이 감성 중심의 정서적 반응과 융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실기문학의 문학적 가치는 시대사의 단층적인 모습을 현장감 있게 구현하면서 경험세계에 대한 작가의 솔직한 자기고백적 토로가 심미적 감수성 및 기록정신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실기문학에서의 서술주체는 경험주체인 작가 자신이기 때문에 서술주체의 서술시각은 작가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동일한 역사체험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실기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작가의 입장과 관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곧 작가의 서술시각은 시대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작품의 형상화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저술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간양록』과 『조선일일기』에 나타난 서술시각의 층위는 경험주체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토로된 경우와, 전문과 사건 추이에 따른 관찰자적 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강항과 케이넨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전쟁이라는 한계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1. 구도자의 시각과 내면지향적 성찰의지

케이넨이 조선 출정은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군인 太田飛驒守一吉의 요청에 의해 마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

다. 이 점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 승려들은 문자(한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書記 역할을 겸하면서, 사상자에 대한 위로와 영혼천도를 해야하는 從軍僧과 부상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醫僧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많은 승려들이 조선 출정에 동원되었다. 케이넨은 醫僧의 자격으로 출정하게 되었다.

처음에 太田飛驒守一吉이 조선 출정에 동행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기에 승낙은 했지만, 왜 나를 데려가려 하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늙었기에 종군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여행이나 출진의 경험이 전혀 없어 상당히 고심하였다. 太田飛驒守一吉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료 때문이라면 젊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꼭 나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니 난감한 노릇이다.

케이넨은 다른 종군승과는 달리 주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승의 신분에 있었기에 서기 역할을 맡던 다른 승려와는 달리 일록체의 글쓰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글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일기』의 300여 일에 대한 기록 중에 70여 일이 구도자로서의 갈등과 자기 반성 및 구도행위에 대한 것이란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케이넨의 자기성찰은 전쟁의 상황을 왜곡되게 기술하거나 부풀림 없이 보고 들은 대로 솔직하게 기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케이넨은 자신의 부대가 섬진강 하류에 도착한 이후 저지런 비인간적인 만행과 노략질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벌써 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남에게 뒤질세라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며 쟁탈하는 모습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분이다.

(和歌) 이것 저것 죽은 자의 재보를 먼저 탈취하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떠들썩한 모습들이여(1597년 8월 4일)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것은 승려의 입장에서 느끼는 전쟁에 대한 충격과 왜군의 비전투요원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행위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이넨은 같은 해 8월 6일 일기에서 "들도 산도 섬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쳐죽인다. 그리고 산 사람은 금속 줄과 대나무 통으로 목

을 묶어서 끌어 간다. 어버이 되는 사람은 자식 걱정에 탄식하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난생 처음 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부처를 섬기는 구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영토확장과 명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인 것이다.

이처럼 케이넨은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고백도 솔직히 털어 놓고 있다.

이것 저것 약탈한 물건을 바라보니 탐이 나서, 스스로 부끄럽고 자신이 천하게 보이고, 이런 마음으로 왕생 극락할지 어떨지 생각되어,

(和歌)부끄럽구나, 보이는 것마다 탐이 나서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지 못하고
망념에 사로잡힌 나의 흉한 모습이며(1597년 8월 7일)

위 글은 왜병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충격받고 혐오감을 가진 그가 자신도 인간적인 물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솔직히 밝힌 것이다. 인간의 물욕은 본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승려라고 해서 그 본성적인 욕구가 없을 리 없다.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내면적인 심리작용이기에 승려일 경우 의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거짓없이 솔직히 드러내어 놓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남보다 더 철저히 억제할 능력을 가진 자만이 솔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왜병들의 노략질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케이넨이 자신도 내면에도 인간적인 물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미 물욕의 경계를 뛰어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불심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솔직한 내면고백체의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일일기』에는 인명의 도륙과 전쟁의 참혹상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일본인의 입장에서 전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무고한 양민에 대한 살육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케이넨은 1597년 8월 28일자 기록에서 “전주를 떠나가면서 가는 도중의 벽촌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고 있는 참상

은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다.”고 하고 있으며, 1597년 11월 12일 기록에서는 “명분도 없는 그릇된 행위이기에 군사들의 서글픔은 판단을 흐리게 하여 조선인의 목을 잘라서 네거리에 세워 놓도록 한다”고 전쟁의 참혹상을 적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이를 금지시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상을 기록하여 후세의 감계 자료로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1597년 11월 15일의 기록에 “매일매일의 일기를 기록하여/파실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허물을 비판한다.”는 和歌를 남기고 있으며 1597년 12월 17일에도

이 세상의 유물로 서적에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 후세를 위한 유물이니 정성으로 잘 읽게 해서 전해들은 사람도 공감하고 그 정취를 느끼게 하여야 한다.

(和歌)사람이 남길 유물으로써 오직 필적에 버금갈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은 후세에 증거로

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참상을 고발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후세의 감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전쟁 그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케이넨이 가지는 불자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글로 기록함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갈등과 고통은 8월 1일자 일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기록에 “더욱 더 번뇌는 극에 달하여 참기 어렵고, 그 고통은 곧 인간 세계의 재앙이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종군하는 몸이기에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부끄럽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긴긴 세월 속에서 처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구도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간 원죄에 대한 안스러움과 죄업을 짓고도 참회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들어내는 정도에 불과하다.

단지 後生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는 까닭에 이 현세에서도

이와 같은 고통을 만난다. 미래를 깨닫고 후세를 염원하는 자라면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무상한 세상이지만, 과오는 있는 법이다.

(和歌)후세에서의 당할 고통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짓고 있는 죄과야말로 결국은 지옥행의 열쇠가 된다.(1597년 11월 13일)

이와 같은 경념의 생각은 불도를 닦는 승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경념은 적극적으로 나서 타인을 구원하려 하거나 가르침을 설파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군의 만행을 범부의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인적 해탈에만 관심을 가진다. 구도적 내용을 가진 70여일의 기록 중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갈등 극복을 위한 자기 성찰, 그리고 왕생을 위한 기원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일일기』에 나타난 내용으로 짐작할 때 경념은 소승적 계열의 승려로 보이며, 이런 입장에서 글의 흐름이 철저한 자기 중심적 내면지향적 성찰의지로 채워져 있다고 보여진다.

2. 포로인의 시각과 보고지향적 목적의지

경념의 『조선일일기』가 일본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개인중심의 사변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비해, 강항의 『간양록』을 비롯한 조선 포로에 의해 쓰여진 실기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씌여졌다. 특히 강항은 공·형조좌랑을 지냈으며, 정유재란 당시 이광정의 종사관으로 부임하여 의병 모집을 위해 격문을 들고 활동하다 피랍되었기에 그의 일본 생활은 일본에서 벌이는 또 다른 전쟁이다.

강항의 이러한 활동은 『적중봉소』로 구체화되어 있다.

「적중봉소」는 강항이 일본의 여지, 관호, 군제, 형제 등을 기록하여 선조에게 올린 疏로서 임란 당시의 일본의 정세에 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강항은 원래 이 封疏를 세 본을 만들었다. 한 본은 戊戌年(1598년)에 伊豫州에 있을 때 金石福을 통해 부친 것이고, 다른 본은 己亥年(1599년)에 朴健성에 있을 때 중국인 王建功을 통해 부친 것과, 같은 글을 다시 써서 辛挺南에게 부탁한 한 본이 있다. 그런데 강항이 王建功을 통해 선조에게 올린 「적중봉소」는 『선조실록』(선조 32년 4월 15일)에 수록되어 있어 그의 일본에서의 활동이 조정에서

중요 첩보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강항의 의지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萬里鯨海의 밖이고 구중궁궐의 안인지라, 혹은 이 왜인들의 奸僞를 통촉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이오니, 전후 사신의 내왕에 있어서도 다만 가고 오기가 총총할 뿐 아니라, 警戒와 禁制가 엄밀하여 얻은 것이 상세하게 구비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요,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사람들 또한 하천배의 무리로서 菽麥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듣고 본 것이 혹은 정확하지 못한 것 같기로, 이에 감히 欸面을 무릅쓰고 기록하되, 倭僧의 題判 가운데 諺書로 쓴 곳을 신이 직접 우리나라 諺書로 등주하여, 謀人의 探聞과 투항한 왜의 推問에 있어 편리하게 하였습니다.⁴⁴⁾

이 글에서 강항은 자신이 封疏한 일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항이 보고지향적인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간양록』을 저술하게 된 데는 그가 가지고 있던 贖罪意識과 이를 보상받기 위한 克倭意志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항은 포로로 잡혔다는 수치심과 임금에 대한 죄스러움을 가지면서도, 민족적 자존과 문화적 우월감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속죄적 보상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행동을 통한 극왜의지의 실천이다. 그가 포로로 잡혀 와서도 구차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복수의 일념 때문이었다.

8일 동안 먹지 않았으나 오히려 一息이 불어 있음이 한스럽다. 그러나 죽지 않은 것은 장차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니, 의미 없이 죽는 것은 부끄러움을 씻는 것이 되지 못한다. (微讓)은 비수를 갖고 다리 아래 엎드려 趙孟에 대해 원수를 갚기로 기약했고, 철퇴를 들고 모래밭에 나타나서 張良의 분을 씻기로 맹세했다.⁴⁵⁾

강항은 일본군에 의해 피랍되어 일본 땅에 도착한 후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 가치 없고 의미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살아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위 글은 일본에 대한 강항의 강렬한 복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44) 『看羊錄』, 「賊中封疏」.

45) 『看羊錄』, 「告俘人檄」.

가 포로로 잡혀와서 생존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오로지 일본에게 당한 수모를 갚는 것에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탈출의 기회를 엿보면서 일본의 정세를 탐문하고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항의 이러한 집념은 「적중문견록」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적중문견록」에는 그가 일본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강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에 이길 수 있는 승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적중봉소」에 기록하여 두었다. 그의 승전전략은 우선 조선의 패전 이유를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에 일본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전략을 세운 것이어서 당시 조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한 정보전략이었던 셈이다.

강항은 조선의 군제와 일본의 군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한 뒤, 조선군이 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적한다. 풍신수길의 정권을 잡은 후 일본의 군제는 兵農分離策이었다. 즉, 실전에 참전하는 무사와 군량을 제공하는 농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무사들의 전투력은 우수할 뿐 아니라 정예화된 것이었다. 농민들 또한 군역의 의무는 없고 다만 군량만 제공하면 되었기 때문에 농사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⁴⁶⁾

이에 비해서 입란 당시의 조선의 군제는 制勝方略이었는데, 실제 전쟁이 발생하자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없었던 무력한 군제였다. 제승방략은 乙卯倭變 이후부터 鎭管體制를 대신한 전시 방어제도였다. 진관제도는 단순한 지방군제의 조직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 방어체제의 근간이 된다. 이 군제는 전국의 행정단위로서의 '읍'을 군사조직단위인 '鎭'으로 편성하여 그 크기에 따라 主鎭, 巨鎭, 諸鎭으로 구분하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임무도 겸하게 하고 있다. 적의 침입을 받았을 경우, 첫번째 진관이 대응하여 격퇴시키든가 그렇지 못하고 함락되더라도 다음 진관에게까지 적이 침입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 그동안 인근 진관 및 중앙으로부터 지원군의 도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⁴⁷⁾

46) 李鉉淙, 「16세기 後半期 東北亞 情勢」, 『韓國史』 12, 271-276쪽 참조.

47) 때문에 실제 전시 상태에서는 각 지방의 군사를 제도상 軍事職을 겸한 所管守令이 인솔하여 미리 해당된 방어지에 가서 대기하되, 都元帥·巡邊使·防禦使·助防將 등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京將과 本道の 兵水使가 각기 그 지휘관이 되어 전쟁

그런데 조선군은 이 군제에 의해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나, 변변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패전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 군제가 만들어진 후 전쟁다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데다, 평소에 훈련다운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⁸⁾

제승방략의 가장 큰 맹점은 장수와 군사가 평소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전시에만 임시방편으로 만나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게 되었을 때 군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장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데에 있었다. 이렇게 되니 장수와 군사가 따로 움직이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잔류병사를 모은다하더라도 지휘체통이 서지 않았다.⁴⁹⁾ 또한 군사들은 평소 훈련을 받은 정예병이 아니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과 천민, 양반들이 섞여 있는 관계로 기강이 문란하여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랐다. 당시 조선의 사정이 이러하니 일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항은 이러한 조선 군제의 모순을 일본의 그것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한 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하께서는 하나의 邊將을 임명하시는 것도 신중히 하고, 하나의 변장을 바꾸는 것도 신중히 하여 文과 武를 구별하지 말고 자격으로 例를 삼지말며, 尾生 孝己와 같은 지극한 행실을 묻지말고 … 비록 비방하는 글이 상자에 가득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전투에 실패하고 성을 잃어버린 후에야 梟首를 시행하고⁵⁰⁾

윗 글은 임금의 用兵術에 관한 내용이다. 선조는 전쟁 초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응전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다니기에만 급급하여 군사·군령권을 가진 최고 통수권자이면서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다.⁵¹⁾ 또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위의 말만 듣고 공을 세운 장수를 죽음에 몰아 넣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⁵²⁾ 강항은 이 글을 통해 선조의 성급함을 간접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에 임하게 되었다.(陸軍本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1968, 275-302쪽)

48) 柳成龍의 『懲愆錄』 卷1. 柳成龍은 制勝方略의 모순을 지적하고 鑛管體制로 군제를 바꾸기를 주장했으나, 이미 굳어진 군제라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다.

49) 『宣祖修正實錄』, 卷 26, 宣祖 25년 4월조. 『倭入尙州李鎰兵潰走還』.

50) 『看羊錄』, 『賊中封疏』.

51) 선조의 파천에 대해서는 당시 임금을 수행하여 의주까지 갔던 柳成龍의 『懲愆錄』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 외 『宣祖實錄』이나 『燃藜室記述』, 『再造藩邦志』 참조.

전쟁에서 장수의 귀중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강항은 일본의 군제가 조선의 것에 비해 보다 효율적임을 들어 본받을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築城방법과 운용에 관한 지적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그밖에 일본군 장수들의(청정, 행장) 불화를 지적하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며⁵³⁾, 종전에 즈음한 계책을 세워 왕에게 진언한다.

강항은 새 번째 탈출에 실패한 후 일본의 새 수도인 伏見城으로 옮겨졌다. 그는 그 곳에서 전쟁이 일본측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가동청정을 비롯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철군을 하려 하나 여의치 않아 공궁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된다. 강항은 같은 포로들 중에서 지모있는 자들과 모여 終戰에 관한 上·中·下의 세 가지 計策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인 王建功의 편으로 조선으로 부쳤다. 上計와 中計는 철병하는 일본군의 퇴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쟁의 마지막에 대승할 수 있는 전략이다. 下計는 화친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 하늘이 賊魁를 없앴고 家康, 輝元 등이 성심으로 和親하기를 원하니, 혹시 화친하기를 청한다면 간단한 書를 내려 (임금께서) 이르기를, “화친을 청하는 일이 만약 진실로 네 나라 임금과 정승에서 나왔다면, 너희들이 모름지기 對馬島 등지로 물러가 있고, 따로 한 사람의 使者를 보내올 것이니, 국경 위에 군사를 진치게 하고서 盟好를 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 使者가 오게 되면 우리도 사신을 보내겠다” 한다면, 적들이 화친하기에 급급하여 이치에 곧 따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52) 임진왜란의 초기 전쟁에 조선군이 최초의 승리를 거둔 것은 副元首 申恪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道元首 金命元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하여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고, 선조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우의정 俞泓의 말만 듣고 軍中으로 선전관을 보내 신각을 목베어 죽이라 하였다. 그러나 뒤에 신각이 죄가 없음을 알고 급히 사람을 보냈으나 신각은 이미 처형당한 뒤였다. 신각의 승리는 비록 그 전과에 있어서는 미미한 것이라 해도 초기 전쟁에서 조선군이 자력으로 일본군을 격파한 최초의 전과였다. 그럼에도 선조는 전후의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중에 있는 장수를 참수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병술에 큰 결점을 드러내고 말았다.(柳成龍, 『懲感錄』과 申昶, 『再造藩邦志』, 권1.참조)

53) 『간양록』, 『적중봉소』.

백성들이 모두 전쟁의 피로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 捕虜된 사람들이 또한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서 慈母의 품안으로 돌아갈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下計입니다. 54)

강항을 비롯한 조선 포로들은 그들이 적국의 수도에 머물면서 일본이 화친을 도모하려 한다는 정보를 직접 입수하고는, 그 계책을 마련하여 조선 조정에 보고하려 한 것이다. 조선 포로들은 왕에게 일본의 내부사정이 화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을 알려, 조선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유리한 입장에서 화친하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간양록』은 철저하게 보고지향적인 목적의식의 가지고 있던 강항의 포로인으로서의 시각이 투영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3. 인본주의적 시각과 전쟁 고발의지

『간양록』과 『조선일일기』에 투영되어 있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인본주의이다. 강항과 경념이 모두 비전투원의 입장에서 전쟁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보다 관망적인 자세에서 전쟁을 바라볼 수 있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간양록』 보다는 『조선일일기』에 이러한 시각이 더욱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는 강항과 경념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실제 전투상황에의 접촉 여부에 따라 표현의 강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념은 종군승의 입장이지만 실제 전투를 경험하고 그 참상을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다. 『조선일일기』에는 그가 직접 목격한 전쟁에 대한 체험세계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관점이 평상심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른 기록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조선일일기』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조선일일기』가 가지는 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가) 성들마다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 속의 뜻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54) 『看羊錄』, 『賊中封疏』.

(和歌)죽도를 나와 보니 사체들로 뒤덮인 섬들이/해변에 산을 이루고 있음이여/도대체 어디까지 계속될는지/그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1597년 7월 19일)

나) 집집마다 불을 질러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의 일같이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읊는다.

(和歌) 적국인 전라도라고 하지만 검붉게 치솟아 오르는 연기는/
마치 이런 상황을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1597년 8월 5일)

다) 조선 아이들을 잡아 묶고 그 부모를 죽이니 서로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공포와 탄식은 마치 지옥의 귀신이 공격해 오는 때와 같아 서러움 속에서 몸을 떨고 있구나.

(和歌) 애처롭구나. 네 마리의 새가 어미와 이별하며/
둥지를 날아갈 때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겠지/
떨어지는 모자의 탄식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597년 8월 8일)

위의 가, 나), 다)는 경념이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가 저지른 만행을 보고 느낀 감회를 적은 글이다. 경념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살육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아무 죄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이유 없는 살생에 관한 것이다. 경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인간세상이 아니라 축생이다. 경념은 비록 자국 군사가 행한 만행이지만 인간 본연자성에 입각하여 이를 비판하는데 그 문식은 매우 상징화되어 있다. '시체가 덮인 해변이 산을 이룬다' 든지, '검붉게 치솟는 연기가 조선 백성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든지, 어린 아이들의 공포와 탄식이 지옥 귀신이 공격해 오는 것과 같다'고 한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게 한다. 이는 바로 경념의 개인적 감정과 이념이 글 속에 치환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기저에 인본주의가 깔려 있다. 그의 인본주의적 사고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쟁의 종식을 강렬히 희망하는 것이다. 전쟁 참상의 고발과 관련된 가장 극명한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온갖 상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인신매매자도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로 목을 묶어 이리저리 몰고 가는데, 잘 걸어가지 못하면 뒤에서 몽둥이로 몰아붙여 두들겨 패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사자가 죄인을

잡아가는 것과 같다.

(和歌) 각자의 직업은 자기 마음에서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온갖 인신 매매상이 몰려 있구나/빨리 숨는게 좋다/주간에 돌아다니다가 젊은이들은 무사들에게 붙잡혀서/개처럼 목에 줄이 매여 인신 매매상에 팔려가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서 흡사 원숭이의 목에 줄을 매어 걸어 다니게 하는 것처럼, 소나 말을 끌게 하고 짐을 들리는 등 다루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 불쌍해서 볼 수 없을 정도이다. (1597년 11월 19일)

위 기록은 많은 조선 양민들이 노예로 팔려 갔었음을 알게 해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본 상인에 의해 끌려간 조선 포로들은 포르투갈 노예상들의 손에 넘겨져 중국, 인도, 동남아, 유럽 등지로 팔려갔다.⁵⁵⁾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분야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內藤萬輔는 2-3만⁵⁶⁾, 유흥렬은 5만⁵⁷⁾, 김의환은 10만⁵⁸⁾, 이원순도 10만⁵⁹⁾, 山口正之도 『조선서학사』에서 적어도 5만 이하는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본 무사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노예사냥을 했으며 이송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다.⁶⁰⁾ 경념의 『조선일일기』는 이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 민족이지만 인간을 짐승과 마찬가지로 줄에 묶어 동등으로 때려 가며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전장이지만, 비전투요원인 양민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죄업으로 본 것이다. 경념은 모든 죄업이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가 전쟁을 통해서

55) 山口正之, 「朝鮮役に於ける被虜人の行方」, 『靑丘學叢』8집, 1932. 140-144쪽 참조.

56) 內藤萬輔교수는 「壬辰·丁酉役における被擄朝鮮人の刷還問題について」란 논문에서는 5-6만으로 주장했으나, 1976년에 발간된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出版會에서는 2-3만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다.

57) 유흥렬, 「濟州道に於ける天主教迫害」, 『이병도박사 화갑기념논총』.

58) 김의환,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59) 이원순, 『조선시대사론연구』, 느티나무, 1993.

60) Juan G.Ruiz de Medina, 『Origenes de la Iglesia Catolica desde 1566 hasta 1784』 (박철 옮김,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 서강대출판부, 1989), 175쪽.

극명히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의 기원은 『조선일일기』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철군이 결정된 후 쓴 和歌에서 “마치 꿈만 같구나/고국을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되어/꿈을 꾸는 듯한 현실 곳에서 노를 베개 삼고 있으니/여태까지의 고통은 결코 전부 잊어버릴 수가 없구나/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오싹해질 정도의 나날이었다.”(1598년 1월 5일)고 읊고 있다. 그는 철군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기쁨을 ‘꿈을 꾸는 듯한 현실’이라고 하였겠는가. 그러면서도 조선에 파병된 날들을 ‘마음이 오싹해진 나날’이라고 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인본주의 때문에 인간성이 말살되는 전쟁터에서 괴로워했으며, 그렇기에 『조선일일기』와 같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일일기』의 가치는 당시의 처참한 실상을 곡진한 필체로 가감없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과 인간주의를 부르짖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필자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여 씌어진 한·일 실기문학을 상호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임진왜란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기존의 연구가 주로 역사학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텍스트로 선정한 작품도 지금까지는 역사학의 사료로 인식되어 온 터라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필자는 기록문학(Non-Fiction Literature)의 관점에서 실기문학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그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임란 기록물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실기문학을 “실존 인물이 戰爭이나 亂,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記, 錄과 같은 문체로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生體驗 중심의 문학이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서도 양국의 문학적 관습과 장르 인식에 적지

많은 문제가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범세계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실기문학과 일본의 軍記物語를 대비시키고, 그 결과 상호비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강항의 『간양록』과 경념의 『조선일일기』를 비교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간양록』과 『조선일일기』는 서술구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산문과 시가가 혼용되어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즉, 산문은 상황진술을, 시는 정감을 표출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는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망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일일기』는 330여수의 和歌가 수록되어 있어 산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을 시적 언어로 상징화시키고 있다. 이들 시는 크게 승려로서의 종교적 신앙심, 望鄉之情의 애뜻한 심정, 전쟁과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혐오감, 終戰에 대한 기원과 인본주의적 자비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간양록』과 『조선일일기』에 나타난 시술 시각의 층위는 경험주체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조선일일기』에는 구도자의 시각과 내면지향적인 성찰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승려라는 작가의 신분상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념의 자기 성찰은 대중교화나 구제보다는 개인적 성찰과 해탈에 집착하는 소승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간양록』에는 일본의 정황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는 강항의 보고지향적 목적의식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전의 계책을 마련하여 조정에 봉소하였고, 이것은 조정에서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강항의 이러한 활동은 포로가 되었다는 자괴심에서 비롯된 속죄적 보상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셋째, 『간양록』과 『조선일일기』에 투영되어 있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인본주의였다. 특히 경념은 비록 자국군의 행위이지만 조선 백성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약탈과 살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전쟁의 무의미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和歌로 시화화되어 조선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통한 평상심 회복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필자는 자료수집과 정리 및 번역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한일 양국의 임란 배경 작품을 다양하게 비교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우를 범하지나 않았는지 자문해 본다. 능력의 한계로 미쳐 헤쳐나가지 못한 부분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자 료 >

- 鄭慶得, 『萬死錄』, 湖山公 宗中所藏本.
鄭好仁, 『丁酉避亂記』, 月村公 宗中所藏本.
鄭希得, 『月峯海上錄』(『海行摠載』, 民族文化推進黨, 1967).
_____, (影印)『月峯海上錄』(上·下·補), 『朝鮮學報』 23·25·26집.
魯 認, 『錦溪日記』(『海行摠載』, 民族文化推進黨, 1967).
_____, 『錦溪集』, 藏書閣本.
姜 沆, 『看洋錄』(『海行摠載』, 民族文化推進黨, 1967).
_____, 國譯『睡隱集』, 全羅南道, 1988.
慶念, 『朝鮮日日記』, 安養寺本(『朝鮮學報』 35집, 1965).
田尻鑑種, 『高麗日記』, 佐賀縣立圖書館本(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 株式會社そしえて, 1982).
天荊, 『西征日記』, 前田尊經閣文庫本(『續群書類從』三, 平凡社, 昭和 四十五年).
大河內秀元, 『朝鮮日記』, 田安家舊藏 5冊.
大田信一, 『高麗陣日記』, 內閣文庫 四冊.
『豐臣記』, 『續群書類從』20집 上, 續群書類從完成會, 平成 元年.
『清正記』, 『續群書類從』23집 上, 續群書類從完成會, 平成 二年.
『朝鮮征伐從軍日記』, 對馬島醒泉院本.
堀杏庵, 『朝鮮征伐記』, (『通俗日本全史』 제29권, 早稻田大學校 出版部).

山崎尚長, 『兩國王亂實記』, 內閣文庫本.
『太閤記』, 慶應義塾出版社, 明治 14년 5월.
黒田家譜, 『朝鮮陣記』, 東洋學報 35권 2호.
日本古典文學大辭典』 第二卷 岩波書店.

< 논 저 >

- 金圻彬, 「睡隱 姜沆研究-愛國思想과 文學世界」, 『民族文化』13집, 民族文化推進會, 1990.
- 김용숙, 「왕조사회와 실기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김태준, 「임진왜란과 한일간의 문화적 대응」, 『아시아문화』8호, 한림대, 1992.
- 소재영, 「임진왜란 전후문학의 특색」, 『한국문학사 서술의 제문제』, 단국대 출판부, 1993.
- 소재영, 「임진왜란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동태」, 『아시아문화』8호, 한림대, 1992.
- 신용태, 『임진왜란 종군기』, 경서원, 1997.
-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논집』 20집, 서울대 국문과, 1995.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 이채연, 「조선전기 대일 사행문학에 나타난 일본인식」, 『한국문학논총』18집, 한국문학회, 1996.
- 장경남, 「임란 실기의 장르적 특성연구」, 『국어국문학』116호, 1996.
-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권3, 지식산업사, 1984.
- 황패강,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 崔 官, 『文錄·慶長の役』, 講談社選書22, 1994.
- 金奉鉉, 『秀吉의 朝鮮侵略と義兵鬪爭』, 彩流社, 1995.
- 貫井正之,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1996.
- 西下經一, 『日記文學』, 日本文學大系 18, 昭和 13년(1938).

久保田淳·西本晃二·戸倉英美, 「日記の謎」, 『國文學』 38권 2호, 學燈社, 평성 5년 2월호.

鈴木良一, 『豊臣秀吉』, 岩波新書 D102, 1996(36刷).

紀田順一郎, 『日記の虚實』, ちくま文庫, 1995.

松田毅一·川崎挑太 編譯, 『秀吉文祿の役』, 中公新書 349, 1991(6판).

吉田小五郎 譯, 『日本切支丹宗門史』, 岩波文庫, 1991(12판).

是永幹夫, 「慶念 朝鮮日日記の研究」, 『靑丘學術論文集』3집, 1993.

中村 質, 「수길정권과 임진왜란의 특질」, 『아시아문화』제 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內藤萬輔, 「僧慶念の朝鮮日日記について」, 『朝鮮學報』35집, 1965.

內藤萬輔, 「朝鮮日日記追考并に正誤」, 『朝鮮學報』41집, 1966.

內藤萬輔, 「壬辰·丁酉役における 被擄朝鮮人の 刷還問題について」(上, 中, 下), 『朝鮮學報』29·33·34집, 1963.10, 1964.10, 1965.1.

崔書勉, 「壬辰·丁酉七年戰役の被虜たち」, 『韓日文化の後榮·中』, 韓國資料研究所, 1963.

中村榮孝, 「月峯海上錄について」, 『朝鮮學報』25집. 1962.10.

德富猪一郎, 『豊臣氏時代朝鮮役』(上·中·下), 大正 10년, 民友社.

內藤萬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出版會, 1976.

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 株式會社そしえて, 1982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出版會, 1971.